임실군, 5567억 규모 추경안 편성

군민안전·정주여건 개선·농업경쟁력 강화·복지행정 등 전 분야 방점

임실군이 천만관광 도약과 군민안전·정주여건·농업경쟁력·복지행정 등 전 분야에 방점을 둔 5,567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은 5,567억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실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대비 495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66억원 증가한 5,2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원이 증가한 31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우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73.7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7억원 △수해피해 복구 15억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5억원 △교량 내진보강공사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15.4억원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31억원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3.8억원 △임실 정주활력센터 건립 13억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38억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4.3억원 △스마트팜 조성사업 4억원 △수도작 농기계 지원 1.5억원 △원예 하우스 시설개선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천만관광 임실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12.8억원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8억원 △자라섬 연계 관광개발사업 8억원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6.5억원 △아쿠아 페스티벌 4억원 △산타축제 1.7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인재 양성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봉황인재학당 교육시설 개선사업 8억원 △임실교육발전특구 반려누리학습센터 건립 2억원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 4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효심행정의 일환으로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비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취약계층 명절 위로금 △기저귀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도 꼼꼼히 추경안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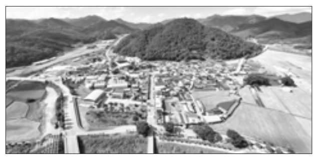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와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한 단계 높은 지역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구림면, 농촌 혁신 거점으로

170억원 규모 농촌협약 공모·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 선정


순창군 구림면

순창군 구림면이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국가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60억 원)과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110억 원) 등 총 두 건의 대형 사업을 통해 구림면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은 순창군 북서부,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구림면의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은 이를 통해 구림면을 명실상부한 농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확정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지난 4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구림면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 임산물인 두릅, 복분자 등의 생산-가공-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농업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총 60억 원 규모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옛 구림양조장 부지를 매입해 쉼터와 주차장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유빨래방·노인 건강관리실·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향상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구림면은 순창군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다"면서, "이번 국가공모사업을 계기로 도시 못지않은 생활 환경과 소득 창출 구조를 갖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백제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

야간시간 운영 공공의료기반 확충

남원시는 지난달 29일, 남원시보건소에서 공공심야약국으로 남원백제약국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식을 개최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29일, 남원시보건소에서 공공심야약국으로 남원백제약국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식을 개최했다.

남원백제약국은 6월 2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들어가며, 이날, 지정식에서는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이 현판을 공식 전달하는 자리로, 약국 대표에게 직접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하며 공공의료체계에서 심야약국이 갖는 중요성과 시민들이 체감하게 될 편의성 제고에 대해 뜻을 모았다.

남원백제약국은 기존에도 아침 7시 30분부터 밤 9시가 연중무휴(365일)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약품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6월 2일부터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며, 야간 시간대의 처방약 조제는 물론 일반의약품 구매 및 약물 상담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6월 2일부터 같은 날 개소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한 지역 야간 의료체계 구축으로, 소아 환자의 야간 진료 후 즉시 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남원시는 2025년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사회적기업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사회적경제 기업에 인프라 지원, 경영지원 컨설팅 등의 맞춤형 사업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를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 업체에게는 3년간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1차년도에는 인프라 지원, 경영진단 컨설팅으로 6천만원,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신제품개발, 마케팅으로 각각 1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조합은 이번 스타기업 육성 기간동안 연매출 20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은 100% 국산 농산물을 엄선하여 저온압착 프리미엄 참기름, 들기름과 들깨를 주원료로 한 들기름 막국수와 들깨 칼국수, 들깨삼계탕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2년에 창립한 조합은 2021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으며, 쿠팡, 컬리, 신세계백화점, 카카오메이커스 등 꾸준한 판로 확장으로 연간 국산 참깨와 들깨 100톤을 수매해 농업을 지키고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품 기부와 장학금 후원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홈쇼핑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기반을 확충하고, 저온시설을 규모화하여 원물 확보와 품질 유지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합 정정은 대표는 "남원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조합은 정규직원 20명, 남원 상생농가 400가구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남원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수술일 기준 남원시에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상)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민이며, 지원 금액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의료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최대 240만원까지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기관이나 민간 보험 등에서 동일 목적의 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임실군이 외래 및 돌발 해충 등 산림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에서 11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에 나섰다.

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 해충에 대하여 농업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해충은 과수 등 농경지와 산림(공원, 가로수 등)을 오가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농경지와 인접 산림에 대한 공동방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돌발 해충 방제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방제 기간(5.28~6.10) 중 6월 2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해 생활권 주변에서 급격한 확산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예찰을 시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자연 재난 대비 축산시설 안전점검 실시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자연 재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관내 축산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15.~10.15.)에 따라 추진되며, 군 농업축산과에서 관내 재난에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재난 유형별로 나뉘어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폭염 대비를 위해 축사 내 냉방 및 환기시설, 급수 시스템, 지붕 차열 시설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정전 시 대처방안 및 비상 발전기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한다.

태풍 및 강풍에 대한 점검에서는 축사의 구조적 안정성, 지붕 고정 상태, 경량 구조물(비닐하우스 등) 보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상태, 우수 유입 방지시설, 사료 방수 보관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